

모시는 말

지난 1년 100인 대중공사에 함께 해주신 도반의 인연에 깊은 고마움을 드립니다. 이제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고 봄볕에 이르러 다시 마주하게 되어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약 3개월여의 기간은 저마다 바쁜 일상에서 안거와 같은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불교의 미래와 사부대중의 역할, 그리고 조계종이라는 공동체에 대해 탐구하는 정진 기간이었으리라 여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종단의 여러 현안에 분주하면서도 대중공사에 임하는 마음으로 한국사회와 불교의 내일을 생각하며 겨울을 보냈습니다. 또다시 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수행의 진전을 기원하며 불기2560년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 도반들을 함께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종단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종단의 미래, 세상의 미래에서부터 재정 투명화, 종단의 현안에 이르기 다양하고 복잡한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그것도 종단사상 처음으로 승속과 지위, 나이와 성별 등에 구애됨 없이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토론 가능할까 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도 한국불교의 저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할 만큼 대중공의의 정신을 살려냈고, 종단 내 심각한 갈등으로 번졌을 사안도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있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조계종 공동체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자는 초심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성원 간의 든든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또한 마음을 열고 대중이 함께 지혜를 모으면 해결 못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은 한국불교의 백년을 열어나갈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역시 사부대중이 주체가 되는 대중공의를 지속하고, 지역 현장 불교의 활성화에 방점을 두며, 더욱 평등하게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사부대중 공동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보다 집중적인 토론을 위하여 전체가 함께 모이는 중앙 대중공사는 그 횟수를 다섯 차례로 줄이고 지역 대중공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대중이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열린 마당을 만든 것입니다. 주제도 총무원장 선출제도와 종단 화합과 개혁방안, 깨달음과 관련한 문제 등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시급한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마도 그 시급성과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견해는 물론 이해관계에 따른 현실적인 시각차이가 표출될 것입니다. 지난해 그랬듯이 희망의 자리에 함께 서서 논의를 진행한다면 치열한 탁마의 열기는 집단 지성의 환희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술의 진보는 이제 산업화를 넘어 정보화, 나아가 인공지능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은 이제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각종 정보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상의 가상공간에 저장되어 다시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인간을 앞서는 기계에 대해 공포 섞인 미래를 전망하며 우려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이 더욱 더 탁월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많은 정보와 뛰어난 인공지능을 다루는 권력에 대한 민주화가 시급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본의 이동이 국경을 허물고 개별 국가의 장벽이 떨어져 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인종, 종교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북핵 개발로 인해 다시금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한국불교는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불교는 이러한 시대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개인들에게 어떠한 답을 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장에 맞게 풀어 놓아야 할 때입니다.

어느 한 집단의 미래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사람, 재정, 조직이 변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과제는 역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법대로 실천하는 참 불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처작주(隨處作主)하면 입처개진(立處皆眞)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바로 서야 조직도 재정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불교의 주인공이 되어서 진리를 열어가는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불기2560년 첫 대중공사의 주제가 총무원장 선출제도인 것은 한국불교의 주인을 바로 세우고 부처님 법대로 운영하는 종단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단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총무원장 한 사람을 잘 뽑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며 사부대중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불교가 시대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과 제대로 법거량하며 고통받고 소외된 중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의 봄날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불기2560(2016)년 3월 3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